



지난 16일 서울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넷플릭스 영화 ‘대홍수’ 제작보고회에서 감독·배우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우 박해수, 김병우 감독, 배우 권은성·김다미. 사진=넷플릭스

“영화 끝날 때쯤 제목의 의미 생각해 보게 될 것”

영화 ‘대홍수’ 김병우 감독 작품 소회
“재난·SF 장르 복합적으로 얹혀 있어
시각 특수효과로 감정 전달 중요했다”

넷플릭스 영화 ‘대홍수’의 연출을 맡은 김병우 감독이 공개를 앞두고 제작과정과 작품 소회를 밝혔다.

영화 ‘대홍수’는 대홍수가 덮친 지구의 마지막 날,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을 건 이들이 물에 잠겨 가는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사투를 그린 공상과학(SF) 재난 블록버스터다. ‘더 테러 라이브’

‘PMC: 더 벙커’ 등 극한상황을 소재로 한 영화를 연출했던 김 감독의 신작으로 배우 김다미·박해수 등이 열연을 펼친다.

김 감독은 지난 16일 서울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재난과 SF 장르가 복합적으로 얹혀 있는 영화”라며 “‘대홍수’라는 제목이 영화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다. 장르와 상황을 충분히 알릴 수 있으면서 영화가 끝날 때쯤 다시 한번 제목을 생각해 보게 될 것 같다. 중의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단순한 재난물 이상의 차별점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생동감 넘치는 물의 움직임 구

현과 관련해 “시각 특수효과(VFX)가 어떻게 영화에서 감정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했다”고 강조했다.

현실과 맞닿아 있는 아파트라는 공간에 대해선 “아파트도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비슷해 보이지만, 각자 개인의 우주를 갖고 있는 것처럼 작품을 통해 보여 주고 싶었다”며 각 캐릭터의 섬세한 내면을 담아낸 과정을 전했다.

배우들도 수중 촬영이 많은 작품인 만큼 준비과정을 털어놨다.

인공지능 연구원 안나 역을 맡은 김다미

는 “물속에서 연기를 하다 보니 스쿠버와 수영을 배우는 등 몇 달 전부터 준비했다”며 “실제로 물이 있었던 현장도 있지만, 물이 없지만 있는 것처럼 연기하기도 했다. 수중에서 보이는 모습과 몸동작을 연구해야 했는데, 그게 어려우면서도 연기 내내 재미있었다”고 밝혔다.

안나 구출임무를 맡은 인력보안팀 희조 역의 박해수 역시 “물속에서 눈을 떠야 하는 장면이 있었다. 물속에서 눈을 떴을 때의 거리감을 익히려 노력했다”고 전했다.

넷플릭스 영화 ‘대홍수’는 19일 공개된다. 노성수 기자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은 19·20일 정기연주회 ‘합창과 문학의 만남-너를 두고’를 개최한다. 사진은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 공연 모습.

사진=세종문화회관

‘관람객 600만’ 돌파
국립중앙박물관 특별 공연
‘우리가 서로 알 수 없었던 시간-삶의 무도회’ 20일 개최

최근 연간 관람객 600만 명 돌파라는 새 기록을 쓴 국립중앙박물관이 이를 기념한 특별공연을 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일 오후 6시 관내 역사의 길에서 박물관문화향연 특별공연 ‘우리가 서로 알 수 없었던 시간-삶의 무도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오스트리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페터 한트케 작품을 한국적으로 재해석했다. 원로배우 박정자, 김선화, 강만홍 등이 열연을 펼친다. 특히 배우들은 정해진 무대 없이 박물관 일상을 무대 삼아 관람객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올해 국립중앙박물관은 개관 이래 가장 많은 관람객을 맞이한 특별한 해”라며 “박물관을 아끼고 사랑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매력적인 전시와 더불어 다양한 문화가 살아 숨 쉬고 서로 교감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노성수 기자

합창으로 피어난 나태주 詩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합창과 문학의 만남-너를 두고’
19·20일 이틀간 세종체임버홀

‘시대의 문인’ 나태주 시인의 아름다운 작품이 겨울밤 무대에서 합창으로 피어난다.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은 19·20일 양일간 서울 광화문 세종체임버홀에서 정기연주회 ‘합창과 문학의 만남-너를 두고’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



나태주의 작품에 새로운 선율을 더해 합창으로 선보이는 무대다.

나태주 시인의 딸인 나민애 서울대 교수가 시 낭송과 사회를 맡아 문학과 합창이 어우러진 무대를 선사한다.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의 맑고 정제된 하모니로 나 시인의 대표시 ‘너를 두고’를 비롯해 11편으로 만들어진 합창곡과 단원들이 직접 작사에 참여한 3곡을 들려준다.

전석 2만 원. 티켓 예매는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www.sejongpac.or.kr) 또는 전화(02-399-1000)로 하면 된다.

노성수 기자